

# 신라 시조 혁거세왕 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한 상 익\*

## 국문초록

C. G. Jung은 일찍이 신화(神話)나 민담(民譚, Märchen)에서 인간 무의식의 보편적, 원초적 조건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인간심성의 보편성을 흔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꿈이다. 그러므로 꿈에 나오는 인간 심성에 있는 보편적인 원형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화소(神話素)들이 등장하는 신화나 민담들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은 실제 임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런 ‘큰 꿈’들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저자는 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대상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신화소에 나타나는 ‘원형’의 보편성을 우리 민족 전래의 신화 속에서 찾아보기 위해 삼국유사를 살펴보던 중 기이편(紀異篇)에 나오는 신라(新羅)의 건국신화인 혁거세왕(赫居世王) 신화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신라는 일찍 건국이 되긴 하였지만 한반도 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제일 작은 나라로서 고구려, 백제에 비해 정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였음에도 결국 삼국을 통일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거의 1000년(BC57~AD935)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라는 점에서 건국과 관련된 남다른 바탕이 있었는지 그들의 건국신화에 있는 원형상(原型像)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반도의 남쪽 작은 나라였던 신라의 건국시조의 탄생신화가 탄생전의 상태에서부터 탄생, 배필의 탄생, 성장, 결혼, 즉위, 다스림, 죽음, 죽음 이후, 계승까지 거의 완전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이 신화에

접수일 : 2013년 3월 18일 / 심사완료 : 2013년 5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5월 27일

\*융학과 분석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오는 1, 3, 5, 6, 7, 13, 61 등 다양한 숫자 상징, 동, 서, 남, 북과 중심을 포함한 모든 방위, 호랑이, 백마, 닭, 용, 봉(鳳) 뱀 등 많은 동물상징, 중심적인 상징인 알을 비롯한 바위, 박(瓢), 전광(電光), 샘물, 내(川), 나무, 숲, 산, 쇠 등 자연의 상징과 선도성모 같은 신상(神像) 등 점차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등장하는 온갖 상징들은 이 짧은 신화 속에 온 인류가 경험해온 의식의 탄생, 부성과 모성의 합일을 통한 성장과 발전, 소멸, 재생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런 과정이 다음 세대로 영원히 계승되는 웅대한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화의 한 단어, 한 문장 또는 별로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보이던 내용들이 점차 그 뜻을 드러내고 있었고,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 작용이 그 모습을 달리 하며 계속 반복되며, 중층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 단어** : 혁거세왕 · 신화 · 분석심리학.

## 첫 머리

C. G. Jung은 일찍이 신화(神話)나 민담(民譚, Märchen)에서 인간 무의식의 보편적, 원초적 조건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인간심성의 보편성을 흔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꿈은 개인의 설명이나 의견만으로는 그 뜻을 알 수 없고 신화나 민담, 그 밖의 원형상이 나타나는 다른 현상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sup>1)</sup>

이렇듯 우리들의 꿈에 흔히 나오는 인간 심성에 있는 보편적인 원형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화소(神話素)들이 등장하는 신화나 민담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는 분석심리학적 연구의 일차적이고도 실제적인 목적은 바로 실제 임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런 ‘큰 꿈’들을 충실히 이해하려는데 있는 것이다.<sup>2)</sup>

신화(神話)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희랍어 ‘μῦθος(mythos)’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 한 부족이나 한 민족에게 널리 통용되는 ‘이야기’를 의미하지만, 신이 한 내용이나 신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한다.<sup>3)</sup> 집단적 무의식에 있는 원형은 신화적 심상을 형성하는데, 분석심리학적 작업의 하나는 ‘원형’의 형성화 과

1) 이부영(1995) : 《한국민담의 심층연구-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서울, pp21-22.

2) 앞의 책, p22.

3) 이유경(2004) : 《신화와 원형》, 이끌리오, 서울, p19.

정을 밝히면서 신화의 형성을 해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형’의 형상화로 들어난 신화를 해명하는 것으로,<sup>4)</sup> 분석심리학적 접근에서 더 많이 논의되는 것은 신화의 형성과정보다 신화의 해석의 부분일 것이다.<sup>5)</sup>

저자는 신화소에 나타나는 ‘원형’의 보편성을 우리 민족 전래의 신화 속에서 찾아보기 위해 삼국유사를 살펴보던 중 기이편(紀異篇)에 나오는 신라(新羅)의 건국신화인 혁거세(赫居世) 신화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신라는 일찍 건국이 되긴 하였지만 한반도 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제일 작은 나라로서 고구려, 백제에 비해 정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였음에도 결국 삼국을 통일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거의 1000년(BC57~AD935)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라는 점에서 건국과 관련된 남다른 바탕이 있었는지 찾아보고자 그들의 건국신화에 있는 원형상(原型像)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삼국유사에 대한 개관<sup>6)7)</sup>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쌍벽을 이루는 책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서 가정 오래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편찬 연대는 미상이나, 1281~1283년(충렬왕 7~9) 사이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삼국유사는 일연 혼자서 손으로 쓰인 전기체(傳記體)의 기록인 이른바 야사(野史)이므로 체제나 문사(文辭)가 삼국사기에 못 미침은 사실이나, 거기서 볼 수 없는 고문서와 민간 기록 등 많은 고대 사료(史料)들을 수록하고 있어 둘도 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헌으로 많은 전설과 신화가 수록된 설화문학서(說話文學書)라고도 일컬을 만하며 그런 점에서 분석심리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체재와 내용을 분류해 보면 왕력(王曆),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을 제목

4) 앞의 책, pp97-98.

5) 앞의 책, p280.

6) 일연(一然), 이재호역(1997) : 《삼국유사 1》, 솔, 서울, pp5-17에서 발췌.

7) 이현희(1983)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16권》, 동아출판사, 서울, pp231-232.

으로 하여 각각의 주제에 맞은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기이(紀異) 편 제1에는 고조선 이하 삼한(三韓)·부여(扶餘)·고구려와 통일 이전의 신라 등 여러 고대 국가의 흥망 및 신화·전설·신앙 등에 관한 유사(遺事)를, 제2에는 통일신라시대 문무왕(文武王) 이후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敬順王)까지의 신라 왕조 기사와 백제·후백제 및 가락국에 관한 약간의 유사 등을 다루고 있다.

## 혁거세왕(赫居世王) 신화의 줄거리

### 1. 6촌의 유래

진한의 땅에는 옛날에 6촌(村)이 있었다. 첫째는 알천(閼川) 양산촌(楊山村)이니 남쪽은 지금 담엄사(曇嚴寺)다. 촌장은 알평(閼平)이다. 처음에 하늘에서 표암봉(瓢巖峯)에 내려오니 이가 급량부(及梁部) 이(李)씨의 조상이 되었다.- 노례왕 9년에 부(部)를 두어 급량부라 했는데 고려 태조 천복 5년 경자(940)에 이름을 중흥부(中興部)라고 고쳤다. 파잠(波潛)·동산(東山)·피상(彼上)·동촌(東村)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돌산(突山) 고허촌(古墟村)이니 촌장은 소벌도리(蘇伐都利)다.

처음에 형산(兄山)에 내려오니 이가 사랑부(沙梁部)-양(梁)은 도(道)라고 읽고 혹은 탁(涿)이라고도 쓰나 역시 도라고 발음 한다-정(鄭)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남산부(南山部)라 하니 구량벌(仇良伐)·마등오(麻等烏)·도북(道北)·회덕(廻德) 등 남촌(南村)이 이에 속한다-지금이라고 한 것은 고려 태조 때에 설치한 것이니, 아래도 이와 같다.

셋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이니 촌장은 구례마(俱禮馬)-혹은 구(仇)라고도 쓴다-이다. 처음에 이산(伊山)-혹은 개비산(皆比山)이라고도 쓴다-에 내려오니 이가 점량부(漸梁部)-양(梁)은 혹은 탁(涿)이라고도 쓴다- 또는 모량부(牟梁部) 손(孫)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장복부(長福部)라 하니 박곡촌(朴谷村) 등 서촌(西村)이 이에 속한다.

넷째는 자산(鷲山) 진지촌(珍支村)-혹은 빈지(賓之), 또는 빈자(賓子), 빙지(氷之)라고도 쓴다-이니 촌장은 지백호(智伯虎)다. 처음에 화산(花山)에 내려오니 이가 본피부(本彼部) 최(崔)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통선부(通仙部)라 하니 시파(柴巴) 등 동남촌(東南村)이 이에 속한다. 최치원은 본피부 사람이다.

지금 황룡사(皇龍寺) 남쪽 미탄사(味呑寺) 남쪽에 옛터가 있다 하니, 이것이 최후(崔侯)(崔致遠)의 옛집임이 분명하다.

다섯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지금의 경주 북쪽의 금강산이니 백률사(栢栗寺)의 북쪽 산이다-이니 촌장은 지타(祗沓)-혹은 지타(只他)라고도 쓴다-다. 처음에 명활산(明活山)에 내려오니 이가 한기부(漢岐部) 배씨(裴氏)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가덕부(加德部)라 하니 상서지(上西知), 하서지(下西知), 내활(乃活)등 동촌(東村)이 이에 속한다.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이니 촌장은 호진(虎珍)이다. 처음에 금강산(金剛山)에 내려오니 이가 습비부(習比部) 설씨(薛氏)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임천부(臨川部)라 하니 물이촌(勿伊村). 잉구며촌(仍仇旆村). 궤곡(關谷)-혹은 갈곡(葛谷)이라고도 쓴다-등 동북촌(東北村)이 이에 속한다.

위의 글을 살펴본다면 이 6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노례왕 9년(32)에 비로소 6부의 이름을 고치고 또 6성(六姓)을 주었다. 지금 풍속에는 중흥부를 어머니라 하고, 장복부를 아버지라 하고, 임천부를 아들이라 하고, 가덕부를 딸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 2. 촌장회의에서 왕을 선거하다

전한 지절(地節) 원년 임자(기원전 69)-고본(古本)에는 건무(建武) 원년이라고 했고 또는 건원(建元) 3년이라고도 했으나 모두 잘못이다-3월 초하루에 6부의 조상들은 각기 자제들을 거느리고 알천의 언덕 위(岸上)에 모여서 의논했다.

“우리들은 위에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방자하여 제 마음대로 하게 되었소. 어찌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을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겠소.”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楊山) 밑 나정(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전광(電光)처럼 땅에 비치는데 흰말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붉은 알 한 개-혹은 푸른 큰 알이라고도 한다.-가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는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어보니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놀라고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동천(東泉)-동천사(東泉寺)는 사뇌야(詞腦野) 북쪽에 있다-에서 목욕시켰다.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

고 해와 달이 청명해지므로, 그 일로 인하여 그를 혁거세왕(赫居世王)이라 이름했다-아마 우리말일 것이다. 혹은 불구내왕(弗矩內王)이라고도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해설하는 이는 말한다.

“이는 서술성모(西述聖母)가 낳은 바니,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이 선도성모(仙桃聖母)를 찬양한 말에 현인을 낳아 건국했다는 말이 있음은 이것이다.”

계룡(雞龍)이 상서(祥瑞)를 나타내어 알영(闕英)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또한 서술성모의 현신(現身)을 말한 것이 아닐까?

위호(位號)는 거슬한(居瑟邯)이라고 했다-혹은 거서간(居西干)이라고도 하니 이것은 그가 처음 말할 때에 스스로 알지거서간(闕智居西干)이 한번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그 말로 인해서 부른 것인데 이로부터 왕자의 존칭이 되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치하하였다. “이제 천자(天子)가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 있는 왕후를 찾아서 배필을 삼아야 할 것이오.”

### 3. 왕후 알영의 탄생

이날 사랑리(沙梁里) 알영정(闕英井)-혹은 아리영정(娥利英井)이라고도 한다-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갈비에서 계집애를 낳았는데-혹은 용이 나타나서 죽었는데 그 배를 갈라서 계집애를 얻었다한다-모습과 얼굴은 유달리 고왔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월성 북천(北川)에 가서 목욕시키니 부리가 떨어졌다. 그 때문에 그 내를 발천(撥川)이라 한다.

### 4. 혁거세왕(赫居世王)과 그 왕후

남산 서쪽에 있는 산기슭-지금 창림사(昌林寺)-에 궁실을 짓고 두 성스러운 아이를 받들어 길렀다. 사내아이는 알에서 나왔으며, 그 알은 박과 같았다. 향인(鄕人)들은 박을 박(朴)이라 하는 까닭으로 그로 인하여 그 성을 박이라 했다. 계집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 알영으로서 이름을 지었다. 두 성인의 나이 열세 살이 되자 오봉(五鳳) 원년 갑자(기원전 57)에 남자는 왕이 되고, 그 여자로 왕후를 삼았다.

나라 이름을 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지금 세간에서 경(京)자를 혼독하여 서벌이라 이르는 것도 이 까닭이다-이라 하고, 혹은 사라(斯羅) 또는 사로(斯盧)라고도 했다.

처음에 왕후가 계정(雞井)에서 탄생한 까닭으로 혹은 계림국(雞林國)이라 하

니, 계룡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일설에는 탈해왕(脫解王) 때에 김알지(金閼智)를 얻어 닭이 숲속에서 울었으므로 이에 국호를 고쳐 계림(雞林)이라 했다 하는데, 후세에 와서 신라의 국호로 정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은 하늘로 올라가고 7일 후에 그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는데, 왕후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한다. 나랏사람이 합장하고자 하니 큰 뱀이 쫓아와서 방해했다. 머리와 사지를 각각 장사지내어 오릉(五陵)을 만들고, 또한 사릉(蛇陵)이라고 했으니 담엄사 북릉이 바로 이것이다. 태자 남해왕(南解王)이 왕위를 계승했다.<sup>8)</sup>

## 유화(類話)

신라의 건국신화인 혁거세왕 신화는 크게 천손강림(天孫降臨)과, 난생신인(卵生神人), 건국 등 큰 주제, 모티프(Motif)들이 있고, 그 외 사전준비, 추대즉위, 왕후탄생과 신성혼, 오체분리 등 여러 가지 작은 주제들도 혼재되어 있는 비교적 복잡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중 혁거세왕 신화의 유화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큰 주제인 건국신화, 천손강림, 난생신인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한국설화유형분류집(이하, 분류집)<sup>9)</sup>에서 찾아보면 ‘건국시조’, ‘시조’, ‘하강’ ‘알’, ‘신인’, ‘영웅’ 등의 유형 항목에 있는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고, 그 외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 신화<sup>10)</sup>와 제주도의 삼성(三性)의 시조 탄생신화인 삼을나 신화가 있다.<sup>11)</sup> 김 알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색 빛이 비추인 나무에 걸린 금궤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바다에서 떠내려 온 금궤 속의 알에서 태어난 석탈해 신화와 유사한 금궤탄생의 내용으로 넓은 의미의 난생신화로 볼 수 있어 혁거세왕 신화의 유화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삼을나 신화는 시조신화로 유화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sup>12)</sup>

결과적으로 혁거세왕 신화와 그 유화들을 이야기 내용에 따라 요약해 보면

8) 일연, 이재호 옮김(2002) : 《삼국유사 1》, 제1권, 제2 기이편 · 상, 솔, 서울, pp107-115.

9) 조동일, 이복규, 김대숙, 강복옥, 박순임(1989) :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pp59,706-707,713,718,749.

10) 일연, 이재호 옮김(2002) : 《삼국유사 1》, 제1권, 제2 기이편 · 상, 솔, 서울, pp127-130.

11) 장주근(2000) :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pp286-305.

12) 조지훈(1997) : 《한국문화사서설》, 나남출판사, 서울, pp57-82.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1) 하늘에서 내려 온 선조에서 태어난 건국시조(고조선 건국신화 : 환웅과 단군, 고구려 동명왕 건국신화 : 해모수와 주몽)

2)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 건국시조(신라 건국신화 : 혁거세, 가락국 건국신화 : 수로)

3) 바다에서 떠내려 온 금궤에서 태어나 건국시조(신라왕 석씨시조 신화 : 석탈해)

4) 하늘에서 내려온 금궤에서 태어난 시조(신라왕 김씨 시조신화 : 김알지)

5) 땅에서 솟아오른 시조(탐라국 건국신화 : 삼성(三性)신화 또는 삼을나 신화)

또한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Motif)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화	유래	사전상황	탄생유형	신성흔	동물	사후
혁거세	하늘	6부, 촌장	알	+	흰말, 계룡	오체분리
단군	하늘	신인+웅녀	인간	+	곰, 호랑이	산신
수로	하늘	9간(干)	알	+	거북, 독수리, 새매, 뱀	왕능
주몽	하늘	신인+유화	알	+	개, 돼지, 소, 말, 물고기, 자라	
탈해	바다	남해왕	금궤	+	까치, 붉은 용	분골(粉骨)
김알지	하늘	탈해왕	금궤	-	흰 닭, 새, 짐승	
삼을나	땅	개벽	솟아남	+	송아지, 망아지	

Thomson의 'Motif Index of Folk-Literature'에 수록된 항목들에서 난생신인의 주제를 중심으로 유화를 찾아보면 'A27 : Creator born from egg' 항목의 유화가 중국에, 'A114.2 : God born from egg' 항목의 유화가 타히티에,



‘A511.1.9 : Culture hero born egg’ 항목의 유화가 남미에, ‘A1222 : Mankind originates from eggs’ 항목의 유화가 중국, 인도, 남미, 오세아니아에 있고<sup>13)</sup> ‘D439.4 : Transformation : egg to person’ 항목의 유화가 인도와 아프리카에,<sup>14)</sup> ‘F611.1.11 Strong hero born from egg’ 항목의 유화,<sup>15)</sup> 그리고 ‘T542 Birth of human being from an egg’ 항목의 유화가 있다고 한다.<sup>16)</sup>

동양 문화권 중 중국의 창조신화에서 천지개벽의 신인(神人) 반고(盤古)가 알에서 나온 것으로 기술되고,<sup>17)</sup> 은(殷)나라 성탕(成湯)신화에는 간적(簡狄)이란 여자가 제비가 떨어뜨린 알을 받아서 상탕(商湯)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건국신화로 천손(天孫)강림(降臨)한 난생설화는 없으나 삼국유사 중 ‘연오랑과 세오녀’의 세오녀, 일본서기의 신공황후(神功皇后),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의 히미코가 동일인으로 한반도에서 건너갔다고 주장되는 고사기(古事記)의 난생녀(卵生女)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sup>18)</sup> 만주족의 건국신화에는 불고륜(佛古倫)이란 여자가 까치가 떨어뜨린 과일을 삼키고 알을 낳았다는 난생설화가 있고,<sup>19)</sup>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에서 독수리 알에서 나온 샤먼, 일본서기에 원초적 존재로서 간단히 언급되는 달걀관념, 인도 힌두교성전 우파니샤드와 드라비다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우주 알의 이미지 등 난생신화는 많은 나라에서 신화소로 존재한다.<sup>20)</sup>

## 혁거세왕 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

### 1. 6촌의 유래

6촌에서 숫자 ‘6’은 물질적 본성을 의미하는 짝수 2와 활력의 본성을 의미하는 홀수 3의 곱으로 자녀를 만든다는 뜻이 있고, 남과 여, 결혼, 조화의 의미가

13) Thomson S(1975) : *Motif Index of Folk-Literature*, vol.1,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London, pp68, 76, 117, 204.

14) 앞의 책 Vol. 4, p42.

15) 앞의 책 Vol. 4, p178.

16) 앞의 책 Vol. 5, p397.

17) 전인초, 정재서, 김선자, 이인택(2002) : 《중국신화의 이해》, 아카넷, 서울, pp44-49.

18) 김성호(1982) : 《비류백제와 일본국가의 기원》, 서울, 지문사 : 노성환((2002) : 일본 신화의 연구, 보고서, 서울, p22.

19) 조지훈(1997) : 《한국문화사서설》, 나남출판사, 서울, p77.

20) 김열규(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p462.

있다. 고대와 신플라톤주의의 수 체계에서 6은 가장 완전한 수였다 왜냐하면 6은 6의 약수들의 합( $1+2+3=6$ )이자 곱( $1 \times 2 \times 3=6$ )이기 때문에 1 다음에 나오는 숫자 중 유일한 완전한 수로 여겨졌고 또한 새로운 생성을 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창조의 여섯 단계는 가장 높은 여섯 천사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곱 번째 영적 존재이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적 존재인 아후라 마즈다에 의해 완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6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의 준비가 완성된 상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려는, 완전성과 충만성을 의미하는 7이 되기 전 단계로도 볼 수 있다.<sup>21-23</sup> 한국의 기층 불교와 무속이 습합되는 지점에서 육환장을 짙은 승려를 가장 신통력이 있는 도승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 전통에서는 ‘6’이 무격(巫覡) 또는 무신(巫神)과 직접 관련을 지닌다고 한다. 한국의 풍습에서 동서남북과 천지(天地) 상하(上下)를 합하여 육합(六合)이라고 하여 온 우주를 나타내듯이, 이목구비와 대소변 배설구를 합한 육공(六孔), 담, 위, 대장, 소장, 삼초, 방광을 합한 육초(六焦), 부모, 형제, 처자를 합한 육친(六親)이라는 말에서 모든 것을 아우른 완전한 상태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한다.<sup>24</sup> 6촌은 혁거세가 나오기 이전 이미 상당한 기간 그 지역을 분할하여 지배하여 온 6개의 촌락을 의미한다. 진한 6촌의 존재는 이미 역사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sup>25/26</sup> 혁거세와 같은 존재가 출현하기 전 이미 사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건국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며 상징적으로 혁거세의 탄생이전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의식이 출현할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신라가 되는 사로국의 시조왕(始祖王) 혁거세가 출현하기 이전에 있

21) Jung CG(1966) :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C.W. 16,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par451n.

22) Jung CG(1967) : *Alchemical Studies*, C.W. 13,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336.

23) 안드레아스 · 쉘멜, 오석균 옮김(1996) : 《수의 신비와 마법》, 고려원미디어, 서울, pp127-131.

24) 김성곤(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p506.

25) 이종욱(2002) : 《신라의 역사 1》, 김영사, 서울, pp22-31.

26) 강중훈(1997) : “新羅 六部體制의 成立과 展開,” 《진단학보》, 83호, 진단학회, 서울, pp1-20.

있던 6촌의 유래도 혁거세와 같이 하늘에서 시조가 내려와 시작된다. 그들의 시조 역시 천손(天孫)이 강림(降臨)한 존재들이었다. 상징적으로 하늘은 물질성을 상징하는 대지 어머니의 대극으로서 부성과 정신적·영적 원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 부성원리는 모성적 혼돈이 있는 대지(prima materia)에 구조와 형태를 부여하여 정신과 물질의 합일을 이루어내는 전 과정의 한 쪽 무대이기도 하다.<sup>27)</sup>

그런 의미에서 큰 왕국의 왕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천손의 후예인 작은 촌들의 촌장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촌을 세우고 나중에 그들이 뜻을 모아 왕을 추대하였다는 것은 큰 왕국의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들이 나름대로 성숙하고 발전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6촌의 촌장들은 모두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왔다. 단군신화에서도 환웅이 태백산에 하강하여 신단수(神檀樹)를 중심으로 신시(神市)를 세우고, 가야(伽耶)의 수로왕(首露王)도 구지봉으로 내려왔고, 혁거세도 양산(陽山) 아래 무물가에 내려온 알에서 나타났다. 산은 하느님의 하강처이자 세계의 중심을 상징한다. 산은 민족의 발생과 생활의 근거를 의미하는 상징성도 가진다. 산은 여성원리와 관련된 풍요와 공동체의 삶을 위한 어머니의 품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격화된 산이나 산에 사는 신이 남성인 경우 수호신적인 상징성이 있어 노인이나 호랑이로 인식되어 그 상징성이 남아 양성에 걸쳐 있다. 또한 산은 하늘과 교통하는 곳이기도 하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땅의 경계, 삶의 터전이며, 유교적으로는 지조, 불변의 기개, 불교에서는 청정의 세계, 도교에서는 영생과 영원의 장소이고 중국인들은 우주의 질서, 만물의 기원을 뜻하기도 한다.<sup>28)</sup>

6촌에 등장하는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과 관련된 분석심리학적인 해석을 하기 위한 전이해(前理解)를 위해 먼저 그 유래와 어원학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9)</sup>

첫 번째 알천(閼川)에 위치한 양산촌(楊山村)의 촌장 알평(閼平)에서 알(諺)은

27) 박신(2004) :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심성연구》, 19(1,2) : p41.

28) 김열규(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pp397-399.

29) 김하준(2004a) : 三國史記 朴赫居世 조 辰韓 6部에 관한 小考, 《語源研究》, 6호 : pp21-33.

우리고유어 ‘알’의 음차로 ‘큰, 위대한’의 의미로 보고, 천(川)은 ‘내’, 평(平)은 벌(伐)과 같은 ‘땅’, 양산촌(楊山村)은 ‘버드나무 마을’의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돌산(突山)에 위치한 고허촌(古墟村)으로 촌장 소벌도리(蘇伐都利)라는 이름의 ‘蘇’는 ‘쇠’를 말하고, ‘벌’은 ‘마을’, ‘도리’는 관칭 또는 인칭어로 추정할 때, 소벌도리 집단은 ‘무쇠집단’으로 추정된다.<sup>30)</sup>

세 번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으로 촌장은 구례마(俱禮馬)인데 무산(茂山)의 茂자는 나무가 우거진 것을 나타내고, 大樹村의 大樹는 사전적으로는 큰 나무인데<sup>31)</sup> 앞의 무산(茂山)의 의미와 합하여 큰 나무들이 무성한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의 뜻이 된다. 구례마(俱禮馬) 중 俱禮의 禮는 麗와 같이 고대의 인명, 지명에서 주로 ‘리’의 발음으로 쓰였다. ‘구리’는 ‘명탕구리’ 등에서와 같이 인칭어로 ‘사람’이란 뜻인데, 지금은 비속어이지만 ‘구리’, ‘도리’, ‘부리’ 등 인칭어(사람의 의미)로 고대에는 인명에 많이 쓰였고 ‘굴(穴), 大, 黃, 人’ 등의 의미도 있으므로 고대엔 높임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다. 馬의 음가는 ‘말’로 ‘머리’의 고대어 음과 같았었는데, 위, 앞, 남쪽, 우두머리, 머리의 의미로 쓰였고 인칭에서는 주로 우두머리의 의미로 쓰였다.

네 번째는 자산(觜山) 진지촌(珍支村)으로 촌장 지백호(智伯虎)가 처음에 화산(花山)에 내려와 본피부(本彼部) 최(崔)씨의 조상이 되었다. 三國遺事에는 최씨의 조상이 자산(觜山) 진지촌(珍支村)의 지백호(智伯虎)로 되어 있는데 三國史記에서는 취산(嘴山) 진지촌에 鄭씨의 성을 내려주고 있다. 자(觜 : 털 뿔)와 취(嘴 : 부리, 주둥이)는 모두 뾰족한 끝을 의미하는 같은 의미의 글자이다. 이름 첫머리 ‘智’는 현대어의 ‘치’, 김알지의 ‘지’ 등과 동일한 존칭어로 보며, 백(百)은 뜻을 취해 ‘만’ 즉, ‘마리’의 훈차로 볼 수 있다. 호(虎)는 호랑이를 나타내며, ‘호, 갈, 범’ 등의 음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름에 범 호(虎)자를 쓴 것으로 보아, 범을 숭상한 일족으로 볼 수 있다. 지백호는 처음에 화산(花山)으로 내려왔다. 화산의 화(花)는 꽃 화(花)자이며, 옛 음은 ‘꽃’으로 역시 뾰족하다는 ‘꽃’과 통한다.<sup>32)</sup>

다섯 번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으로 촌장 지타(祗沓)-혹은 지타(只

30) 앞의 책.

31) 민중서관편집국(2004) : 《漢韓大字典》, 민중서관, 서울, p498.

32) 앞의 책.

他)라고도 쓴다-가 처음에 명활산(明活山)에 내려왔다. 금산의 가리촌(加利村)을 ‘가리별’로 읽으며, 지타(只他)에서 ‘只’는 는 지(知), 지(智) 등의 경우와 같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비속어(그 치 등의 ‘치’)이지만 고대에는 높임말이었다고 한다(김알지 등). 타(他)는 뜻을 취해 ‘다라’에 가까운 음가로 볼 수 있다. 결국 ‘지다로, 지다라’ 등과 비슷한 발음으로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의 다른 이름, 지대로(智大路), 지도로(智度路), 지철로(智哲老)와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라’, ‘다로’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고(高)의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달=山, 다라의 ‘달’ 등).

여섯 번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으로 촌장 호진(虎珍)이 처음에 금강산(金剛山)에 내려오니 이가 습비부(習比部) 설씨(薛氏)의 조상이 되었다. 호진의 이름을 보면, ‘虎’는 범 虎자이고, 珍은 ‘돌’ 또는 ‘도’로 읽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虎珍은 ‘범돌’ 또는 ‘호돌’ 등의 고유어 이름을 한자화한 것으로 사람 이름의 호칭어미 ‘이’를 붙이면 ‘범도리’, ‘호도리’가 되는데, 여기서 ‘도리’는 소벌도리의 경우처럼 공 즉,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元曉의 성씨 설(薛)은 설날의 ‘설’과 통하는데, 이는 처음(初), ‘빛이 처음으로 듬’의 의미로 ‘빛(明)이 살아나다(活)와 통한다는 뜻으로 ‘설(薛)도 명활(明活)과 통하는 말이라고 한다.<sup>33)</sup>

6촌의 지명에 대한 뜻을 정리해보면 알천(關川) 양산촌(楊山村)에서 ‘큰 내’, ‘큰 땅’, ‘버드나무’, 표암봉(瓢巖峯)에서 ‘박’, 돌산(突山) 고허촌(古墟村)에서 ‘쇠’, ‘튀어나옴’,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에서는 ‘큰 나무들이 뻗뻗이 우거진 곳’, 자산(紫山) 진지촌(珍支村)에서는 ‘뽀족하게 튀어 나옴’,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에서는 ‘쇠’,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에서도 ‘밝은 빛이 살아나는 곳’의 뜻을 찾을 수 있다. 또한 6촌에 나오는 이름을 보면 ‘넓은 땅’이라는 의미인 ‘알평’, ‘쇠’의 뜻이 있는 ‘소벌도리’, ‘높은 사람, 우두머리’의 뜻이 있는 ‘구례마’, ‘범, 호랑이’의 뜻이 있는 ‘지백호’, ‘높은 사람’의 뜻이 있는 ‘지타’, 역시 ‘호랑이’의 뜻인 호진(虎珍)등이 등장한다.

위에 열거된 지명들과 인명들의 뜻을 분석심리학적으로 정리해 볼 때 우선 ‘큰 내’와 ‘넓은 땅’이 등장한다. ‘큰 내’에서 ‘내’는 흐르는 물이다. 물은 만물이 시작하는 원초적인 상태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며 신성(divine water)이 있으

33) 앞의 책.

며 무의식 자체이기도 하고 원물질(prima materia)로서 전체성(全體性)을 의미하기도 한다.<sup>34)</sup> 무의식의 생동성, 자율성, 그리고 꾸밈이 없는 소박함, 깊이를 모르는 크기, 이런 속성들은 흔히 물에 비유된다.<sup>35)36)</sup> 노자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 즉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라는 말에서 물처럼 사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결국 도(道)라고 한다. 여기서 상선(上善)은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자기로 볼 수 있으니 결국은 물이 자기를 상징하기도 한다.<sup>37)</sup>

‘땅’은 상징적으로 혼(Seele)과 생명의 영(Geist)과 모성이 살아있는 곳이고, 원질료(prima materia)이다. 원질료는 무수히 다양한 이름. 즉 수은, 청동, 철, 금, 납, 소금, 유황, (식)초, 물, 공기, 불, 흙(대지), 피, 생명수, 라피스, 독, 영(Geist), 구름, 하늘, 이슬, 그림자, 바다, 모성, 달, 용, 비너스, 카오스, 소우주 등<sup>38)</sup>으로 불렸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다.<sup>39)</sup> 무의식은 진정 생명과 창조성의 원천이다. 그리고 무의식은 의식작용보다도 항구적이고 그 능력을 능가하는 특징이 있다. 이 자율성은 창조적 자율성이다. 무의식의 중심 자기원형은, 자기와 자아의 전체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신성(Numinosum)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도 한다.<sup>40)</sup>

‘버드나무’는 상징적으로 생명력, 봄, 섬세함, 아름다움 등 여성다움 등을 의미한다. ‘버드나무’는 ‘버들’과 ‘나무’의 합성어인데 ‘버들’의 어근은 ‘변’이라고 하며, 만주어로는 ‘보도호(potoho)’인데 그 어근은 ‘봄(pot)’으로 ‘변’과 어원이 같으며 여자의 성기를 뜻하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sup>41)</sup>

표암봉(瓢巖峯)에 나오는 표(瓢)는 ‘박’ ‘표’자로, ‘박’은 박과의 한해성 덩굴살이풀이다. 목이 잘룩한 호리병박(조롱박)이나 작고 둥근 박으로 만든 표주(瓢舟)박은 전통 혼례에서 합근례(合罇禮)때 합환주(合歡酒)를 마시는 데 사용했으

34) Jung CG(1967) : *Alchemical Studies*, C.W. 13,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 89.

35)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392.

36) Jung CG(1959a) : *The Archetype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I, Princeton Univ.Press, Princeton, par 37.

37) 이부영(2001a) : 노자와 용(3) : 上善若水《길》, 2(2) : 3-5.

38)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저작집번역위원회역(2004b) :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용기본저작집 6권, 숲, 서울, p128.

39) 앞의 책, p270.

40)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p69-70.

41) 서정범(1996) :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서울, p198.

며, 신랑·신부가 대작(對酌)을 한 뒤 두 표주박을 합쳐 신방의 천정에 매달아 애정을 보존하였다.<sup>42)</sup> 결국 박은 그 빛깔이 희고 큰데서 백마와 더불어 밝음을 표상하고, 천상의 통로, 벽사, 풍요, 다산, 장수, 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큰 나무들이 무성한 마을’의 ‘큰 나무’는 연금술에서 대극의 합일의 상징으로서 성장하면서, 불변의 영원한 존재로의 길이 된다.<sup>43)</sup> 나무는 힘이며, 생명이며, 에너지이며 하늘, 즉 저승을 향한 길이며, 남성적인 정기이며 동시에 아이를 산출하는 모성이기도 하다.<sup>44)</sup>

‘빛’은 본래 자연의 빛(Lumen nature)의 상태로 무의식에 있고 그것은 자기 원형이다.<sup>45)</sup> 또한 깨달음이라는 뜻에서 의식의 상징이기도 하다.<sup>46)</sup> 즉,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을 갖다 주는 것으로 무의식을 의식화 시키는 근원이며 원동력이다. 음과 양, 모성과 부성, 의식과 무의식이 순식간에 만나게 하는 강력한 리비도, 정신적 에너지, 창조적 힘으로 많은 신화에서 빛으로 잉태되는 이야기가 있다.

‘호랑이’는 한국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 먹는 동물로 공포와 외포(畏怖)의 대상이지만,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인도자’(psychopompos), 신의 사자(使者), 사계(死界)의 문지기이기도 하고, 마력을 가지거나 어떤 남녀의 세속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호랑이 역시 좋으면서도 싫고 무서우면서도 우러러보는 원형상의 특징인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것이다.<sup>47)</sup>

‘쇠’는 혁거세 신화 뿐 아니라 석탈해, 김알지 등 신라 건국의 세 시조의 신화와 모두 관계가 있는데, 쇠(=금=金)에서 태어난 김알지와 야장(冶匠)의 후손임을 자처한 석탈해는 모든 철기를 가진 지배자임을 상징한다고 한다. 혁거세를 추대한 사로국 6부 촌장이 지배하는 사로국(斯盧國)은 바로 쇠가 나는 변한(弁韓)에 속해 있었고, ‘신라’라는 국호 또한 ‘쇠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한다. 선사

42) 강인희(199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권, 한국정신문화원, 서울, p600.

43)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저작집번역위원회역(2002) : 《원형과 무의식, 융기본 저작집 2권》, 숲, 서울, p236.

44)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p195-196.

45)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p226-227.

46) 이부영(1998) : 앞의 책, p393.

47) 이부영(1995) : 《한국민담의 심층연구 : 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서울, pp121-126.

시대에는 쇠를 다루는 사람은 최강자로 쇠가 정치와 제의의 상징이었고 고아시아족 샤먼의 경우에도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무당을 겸하였다고 한다.<sup>48)</sup> 고대의 왕은 ‘불을 다스릴 줄 아는자’ 곧 석탈해와 같은 ‘야장(冶匠)’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불이 쇠를 버리듯이 영혼을 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민중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다고 한다.<sup>49)</sup>

위에 열거된 지명들과 인명들의 뜻을 정리해 볼 때 ‘큰 내’, ‘큰 땅’, ‘버드나무’, ‘무성한 큰 나무들’, ‘촌장들이 하강한 장소인 ‘산’ 들은 경우에 따라 Self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음(陰)적인 이미지로 모성의 상징 또는 아직 아무런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혼돈의 상태에 있는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sup>50)51)</sup> ‘빛’, ‘박’, ‘호랑이’, ‘쇠’, ‘단단함’, ‘뽀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장소’와 같은 것들의 상징적 의미는 주로 양(陽)적 이미지, 부성, 또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2)53)</sup>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 혁거세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이미 음(陰)의 세계, 모성의 세계, 아직 혼돈의 상태인 무의식에, 양(陽)의 세계, 부성의 요소, 의식의 요소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고, 새 세계가 시작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2. 촌장회의에서 왕을 선거하다

촌장들이 만난 음력 삼월 초하루는 3과 1이 있는 날이다. 3은 상대적인 전체성을 의미한다. 상징적으로 3은 불완전한 사위성(Quarternity) 또는 완전한 사위성으로 가는 디딤돌로 이해해야 한다.<sup>54)</sup> 1은 모든 수의 처음 시작이고 3은 서로 반대되는 홀수와 짝수가 합일이 되어 있는 수이다.<sup>55)</sup> 결국 3월 초하루는 아

48) 주강현(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p427.

49) 임수주(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p371.

50) Jung CG(1967) : V The Philosophical Tree, *Alchemical Studies*, C.W. 13,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350.

51) 이죽내(1987) : 한국 민담에서 본 모성상, 《심성연구》, 2(2) : p93.

52) Jung CG(1956) :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5,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par 135.

53) 박신(2004) :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심성연구》, 19(1,2) : 33-64.

54) Jung CG(1959b)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Self, *Aion*, C.W. 9-II,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351.

55) Jung CG(1958) :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Dogma of the Trinity,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C.W. 11,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179-180.



직은 불완전한, 상대적인 3과 시작하는 수인 1이 합쳐져 (3+1)이 되어 진정한 완전수 4가 되는 절대적인 전체성을 이루는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sup>56)57)</sup> 셋은 신화적 세계관에서 천, 지, 인 셋으로 구성된다, 단군 신화에서 환인은 천상 세계의 신이고, 환웅은 천상과 지상을 오가는 존재이고, 단군은 환웅의 아들인 인간으로 등장하다. 천부인도 3개를 주어 바람, 비, 구름 세 가지를 다스리게 했다. 7일이 세 번 거듭되는 삼칠일에 웅녀가 인간이 됴므로써, 동물이 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의 반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삼의 상징성을 보여준다.<sup>58)</sup>

삼월을 흔히 춘(春)삼월이라고 하고, 달리 가월(嘉月)이라고도 한다. 가(嘉)는 ‘아름답고 좋다’는 뜻으로, 온갖 꽃들이 활짝 핀 아름답고 화사한 봄의 달이라는 말이다. 봄은 신화에서는 시작과 풍요, 무속과 민속에서는 한 해의 시작, 생명의 탄생, 풍습에서는 생명력을, 동양문화에서는 소생, 희망,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새로운 왕이 출현하기에 적절한 계절이기도 하다.

6촌장들은 바로 그러한 시간에 알천의 언덕 위(岸上)에 모여 의논한 후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즉 언덕, 높은 곳(산)에 가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구하는 하늘의 뜻에서 하늘(Heaven)은 첫째로 신(神)을 상징한다.<sup>59)</sup> 또한 땅에 사는 존재가 가질 수 없는 힘, 신성함, 영속성과 우주적 질서를 의미하며, 하늘과 땅이라는 대극적 의미에서 수동적인 여성으로서 땅에 대해 능동적인 남성의 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sup>60)</sup> 상징적으로 하늘은 부성과 정신적·영적 원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 부성원리는 이차적으로 물질적 세계에 추가된 부분으로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고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도 하다.<sup>61)62)</sup>

56) Jung CG(1959a) : A Study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I,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611.

57) Jung CG(1958) :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the Dogma of the Trinity,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C.W. 11,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246, 290.

58) 김종대, 김태준(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pp422-426.

59) Cirlot JE, 이승훈 편저(1995) : *A Dictionary of Symbols*,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서울, pp511-514.

60) Chevalier J, Gheerbrant A, trans. by Buchanan-Brown(1996) : *A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p484-485.

61) Jung CG(1974) : “the Father in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Freud and Psychoanalysis*, C.W. 4,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728.

6촌의 촌장들도 언덕 위에 모여 의논을 하였는데 그들도 결국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그곳에서 더 높은 곳, 산으로 올라가 하늘의 뜻을 찾을 수 있었다. 산은 그러한 하늘에 가까운 곳, 하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잘 알 수 있는 곳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Baal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언덕, Bamoth<sup>63</sup><sup>64</sup>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도 Ramah,<sup>65</sup> 즉 언덕이었다. 언덕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인 것이다. 성경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도 높은 곳인 호렙 산이고<sup>66</sup> 하나님이 주는 십계명을 받은 곳도 시내 산이다.<sup>67</sup> 우리나라 단군신화에서도 환웅이 태백산에 하강하고 가락국의 김수로왕도 구지봉에 내려오고, 산신령과 같이 남성적인 수호신적 상징성이 있는 노인이나 호랑이로 인식되기도 하는 반면에, 민간신앙에 나오는 노고(老姑), 곧, '산할미'가 있다는 노고단(老姑壇), 노고봉(老姑峰)에서 보듯이 산은 대모(大母)로서 여성 원리와 관련된 풍요와 공동체의 삶을 위한 어머니의 품을 상징하기도 한 것에서 산의 신격은 남녀양성에 걸쳐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산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만나 전체성을 이루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결국 산은 신성이 머무는 곳, 신 자체 또는 신과 통하는 곳으로 신이 하강하는 곳임과 동시에 신으로 올라가는 곳으로 남녀 양측의 상징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원형상으로 볼 수 있다.

6촌의 조상들이 3월 초하루 날 자제들을 데리고 알천의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한 내용은 백성들이 모두 방자해져서 덕 있는 사람으로 임금을 삼고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자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6촌의 촌장들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각각의 촌들의 규모가 커지고 백성이 많아진 후 백성 모두가 방자(放恣)해진 것이다. 다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건방지고, 방종하고, 뽐내는 상태가 되어 그들의 능력으로는

62) 박신(2004) :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심성연구》, 19(1,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p40.

63) Jung CG(1956) :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5, Princetin Univ.Press, Princeton, par280.

64) 민영진(2003) : 여호수아13장18절, 구약전서 《표준새번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서울, p232.

65) 앞의 책, p781.

66) 앞의 책, p57.

67) 앞의 책, p76.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백성들이 많아지자 그들의 힘이 부치게 되어 이제는 6촌이 합하여 큰 왕국을 이룬 후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왕이 필요한 단계에 온 것이다.<sup>68)</sup> 마치 태어난 후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작은 의식의 편린들이 나타나 점차 커지고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의식의 발달이 진행되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일시적 혼란을 겪으면서 진정한 의식성을 획득하려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sup>69)</sup>

촌장들이 언덕에 모여 의논하고 높은 곳으로 갈 때 각기 자제(子弟)들을 거느리고 같이 갔다고 한다. 자제들은 아버지의 미래를 나타내는 분신으로 현재의 집단 의식인 아버지에게 비해 아직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다.<sup>70)</sup> 촌장들은 하늘, 무의식에 있는 자기(自己)<sup>71)72)</sup>의 뜻을 알아보고 찾는 과정에 아직은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아들과 같이 감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전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늘의 뜻을 찾고, 또한 그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영속성을 도모하기도 한다.

촌장들이 높은 곳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楊山) 밑 나정(蘿井) 곁에 이상한 기운이 전광처럼 땅에 비치는데 흰말 한 마리가 꿩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 가보니 붉은 알, 혹은 푸른 알이 있었다.

남쪽은 ‘앞’을 의미하므로 의식의 방향이기도 하고, 남쪽의 색인 붉은 색은 양기를 뜻하고, 살기 좋은 이상향, 중요한 곳을 뜻하기도 한다. 양산(楊山)은 ‘버드나무산’이다. 버드나무는 ‘생명력, 봄, 섬세함, 아름다움 등 여성다움 등을 의미하고, ‘버드’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sup>73)</sup> 나정(蘿井)의 나(蘿)는 ‘소나무겨우살이, 쑥, 무, 미나리, 담쟁이덩굴, 새삼넉출, 지칭개’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sup>74)</sup> 결국 나무에 감겨 있는 덩굴로 표현되는 여성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sup>75)</sup> 우물(井) 또한 영혼의 우물, 지혜의 우물이

68) 이죽내(1987) : 한국 민담에서 본 모성상, 《심성연구》, 2(2) : p96.

69)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p31-40.

70) Jung CG(1956) :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5,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ar 497.

71) 이부영(2002) : 앞의 책, p248.

72) 이죽내(1987) : 앞의 책, p95.

73) 서정범(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p464.

74) 문순열(2008) : 《산야초식물도감》, 서울, 글로북스, p136.

75) Jung CG(1959b) : *The Syzygy ; Anima and Animus, Aion*, C.W. 9-II, London, Routledge & Kegan Pau, par 20.

며 알이 출현할 무의식의 창조적 모성을 상징한다.<sup>76)77)</sup> 버드나무, 산 밑, 덩굴나무, 우물 모두 4가지의 모성의 상징이 중첩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완전한 모성의 토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양기를 동원하여 의식을 높이어 남쪽을 바라보니 거기에 이미 완전한 모성이 자리 잡고 있어 자연스럽게 음양의 조화와 합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이다.

전광(電光)처럼 땅에 비치는 이상한 기운은 번갯불로 천신(天神)의 상징이다.<sup>78)</sup>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을 갖다 주는 것으로 무의식을 의식화 시키는 근원이며 원동력이다. 음과 양, 모성과 부성, 의식과 무의식이 순식간에 만나게 하는 강력한 리비도, 정신적 에너지, 창조적 힘으로 많은 신화에서 빛으로 잉태되는 이야기가 있다. 빛은 본래 자연의 빛(Lumen naturae)의 상태로 무의식에 있고 그것은 자기 원형이기도 하다.<sup>79)</sup>

혁거세 신화에 나오는 백마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제왕이 태어날 알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하늘의 사자(使者)로 등장하는데 고분 벽화에도 등장하는 천마(天馬)에서 보듯이 말은 하늘과 교통하는 신성한 영물이다. 말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동물로서 제왕의 출연을 알리는 신성성을 말해 주고 있고, 역경의 팔괘 중 건괘의 상징 동물로서 하늘에 해당되는데 특히 흰말은 신성시 되고 날개가 있는 천마는 하느님이 타고 하늘을 달린다. 말은 인도, 유럽에서는 사자(死者)의 영혼을 인도하는 안내자로, 또는 태양을 상징하는 동물로 수레바퀴와 우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혁거세왕 신화의 말은 하늘로 표현되는 집단적 무의식과 사람들로 표현되는 집단의식 간의 관계를 맺어 주어 새로운 통정된 집단의식을 탄생시키는 기능을 하는 아니마(Anima) 원형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sup>80)</sup> 결국 아니마 원형인 백마가 가장 강력한 부성을 나타내는 하느님이 계신 하늘의 기(氣)인 전광(電光)을 4가지 모성상징이 중첩되어 완전한 모성을 상징하는 장소, 양산(楊山)의 나정(蘿井)에 내리게 인도하여 새로운 임

76) Jung CG(1959a) :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Mother Archetype,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I, London. London &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par 156.

77) 이죽내(1987) : 한국 민담에서 본 모성상, 《심성연구》, 2(2), 한국분석심리학회, p96.

78) 앞의 책.

79)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p226-227.

80) 이죽내(1987) : 한국 민담에서 본 모성상, 《심성연구》, 2(2) : p96.

금이 될 사내아이를 품고 있는 신성한 알을 출현시킨 것이다.

붉은 알 한 개-혹은 푸른 큰 알-을 깨어보니 사내아이가 나왔고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신화에서 알은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 자체의 무한한 동력과 발전의 상징이다, 알은 원형의 상징성이 최종적으로 취합되어 원만함의 큰 융통성, 자유로움과 함께 하늘을 모방한 소우주라는 상징성을 지니며 원의 우주성이 알에 이르러 완결된다. 중국의 반고의 신화에서 우주알(Cosmic Egg)은 생명소 또는 우주 창생의 모태를 상징하기도 한다. 알은 우주의 근원이며 신들의 출생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족 영웅들의 출생과 관계된다. 또한 알은 세계혼을 내포한 혼돈의 기본물질이고, 생명의 싹, 원초적 인간, 육체에 사로 잡혀 있는 안트로포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성이다.<sup>81)82)</sup>

알의 색이 붉은 색인 것도 같고 푸른 색 인 것도 같다는 것은 음양(陰陽)이 아직 분화되기 전 혼돈과 무정형의 상태이며 우주의 근원을 나타내는 우주란(宇宙卵 ; Cosmic Egg)인 태극을<sup>83)</sup> 상징하는 알의 색을 한 가지 색으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알에서 나온 아이를 동천(東泉)-동천사(東泉寺)는 사뇌야(詞腦野) 북쪽에 있다-에서 목욕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졌고, 그 일로 인하여 그를 혁거세왕 혹은 불구내왕(弗矩內王)으로 이름 하였는데 그 뜻은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동천(東泉), 동쪽에 있는 샘, 에서 동(東)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빛이 시작하는 곳이고, 우주적 정신이 있는 곳이고<sup>84)</sup> 시간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늘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 생명력의 근원으로 모성의 상징인 샘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목욕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이 춤을 추고 해와 달이 청명해지는 것은 신화적 인물인 혁거세의 이중 탄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씻김(洗禮)과 그의 탄생에 대한 우주적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혁거세(朴赫居世)라는 이름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박(朴)은 '박'의 음

81)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p190-193.

82) Jung CG(1953) : *Psychology and Alchemy*, C.W. 12,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138.

83) 정재서(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p593.

84) Chevalier J, Gheerbrant A, trans. by Buchanan-Brown(1996) : *A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p334-335.

차로 성씨를 추가한 것으로 뒤에 나오는 이름과 같은 뜻을 중첩하여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원래의 이름은 ‘弗矩內’에 가까운 음가(音價)를 가졌었다고 한다. 불거내(弗矩內)에서 ‘弗矩’는 현대어 ‘밝거, 밝은’에 해당되는 음차로 보며, ‘내’는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의 그 당시 발음을 음차한 것으로 본다. 혁거세(赫居世)에서 혁(赫)은 뜻을 차용한 것으로 보고, 거(居)는 음차이고, 세(世)는 불거내(弗矩內)의 내(內)음의 뜻을 나타낸 말로 보아, 결국 ‘밝은 누리’로 볼 수 있다고 한다.<sup>85)</sup> 하늘에서 전광(電光)같은 강력한 빛의 기운이 동쪽에 있는 샘에 서리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인 박혁거세(朴赫居世), 또는 불거내(弗矩內)는 앞으로 건국할 왕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법을 뜻하는 가장 큰 새로운 집단의식을 칭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명칭일 것이다.

혁거세의 탄생 이야기 중에 본문에 딸린 주석처럼 해설하는 이가 말하는 형식으로 서술성모(西述聖母), 또는 선도성모(仙桃聖母)가 혁거세를 낳았다고 주석을 달아 설명을 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선도성모는 신라의 도움 경주 서쪽에 있는 선도산(仙桃山), 또는 서술산(西述山)이라는 산의 산신이고 신라의 국모신이다. 그는 원래 중국 황실의 공주로 신라에 와서 오래 살다가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선도산에 머무르는 신모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후 신라의 시조 혁거세와 왕비 알영도 낳았고 이후 중요한 불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런 형식과 내용에 대해 선도성모가 원래는 혁거세혈족의 시조모였으나 6촌의 연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고려시대에 쓰인 삼국유사에 중국에 대한 모화주의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데,<sup>86)</sup> 결과적으로 하늘의 빛과 샘물과 백마가 관련되어 생긴 알에서 나온 혁거세와 선도성모가 낳은 혁거세가 있는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혁거세 탄생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부성상징인 천신으로 볼 수 있는 전광 같은 빛에 비해 모성상징인 샘물은 아무래도 부성에 대한 대극적 존재로서 그 세기가 약하고 크기도 작은 느낌이다. 그 점에서 굳이 주석에 모성 원형 중에서 가장 강한 모성원형과 같은 선도성모에 대한 기사가 보완되어 보다 크고 강한 우주적 존재가 태어났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이 주석의 끝에 혁거

85) 김하준(2004a) : 三國史記 朴赫居世 辰韓 6部에 관한 小考, 《語源研究》, 6호 : pp21-33.

86) 조현설(2006) : 《우리신화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서울, pp174-183.

세의 왕비인 알영도 서술성모가 낳았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가 서술성모 자신의 현신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혁거세와 알영의 탄생에 관련된 모성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혁거세의 위호(位號)인 거슬한(居瑟邯) 또는 거서간(居西干)에서 거서(居西)는 '있을 거(居)'의 뜻을 차용하였고, 서(西)는 사이 'ㅅ'으로 보고, 간(干)은 왕(王)을 칭하는 말로 보아, 거서간(居西干)은 이사금(尼師今)과 같이 '잇간'을 한자어(漢字語)로 표기한 것으로 본다.<sup>87)</sup> 따라서 박혁거세 거서간(朴赫居世 居西干)은 '밝은 누리 잇금(임금)'이라는 뜻인데 '임금'은 중세에 '님금'이었고 님(主)와 금(君)의 합성어로 '왕'의 뜻이다. 결국 빛에서 태어난 새로운 질서와 권세를 지닌 강력한 집단의식을 '밝고 밝아진 세상의 임금'으로 부른 것이다.

### 3. 왕후 알영의 탄생

의식이 일방적으로 독자적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근원적 정신, 무의식은 더 이상 의식에 지지를 보내지 않게 되어 전체 정신의 이중적 분열이 극대화되어 대극의 반전(Enanthiodromie)이 일어날 수 있다.<sup>88)</sup> 이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인 창조신화와 2단계인 영웅 신화가 매듭지어 지게 되는 과정이 지나면 3단계인 신성혼(神聖婚)의 단계가 출현하게 된다.<sup>89)</sup>

혁거세왕 신화에서도 혁거세가 탄생하자마자 백성들은 바로 그의 배필을 구하고 그의 왕비 알영의 탄생이 이어진다. 알영은 알영정에 나타난 계룡(鷄龍)의 왼쪽 갈비뼈에서 태어난다. 혹은 그곳에 나타나 죽은 용의 배를 갈라 나온 것이라고도 한다. 계룡(鷄龍)은 계(鷄)와 용(龍)이 합쳐진 상상의 특수한 동물이다.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알리는,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로 예고 내용이 빛이기 때문에 태양의 새이고 불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닭의 존재 양상의 이중성, 즉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방식은 어둠과 밝음을 경계하는 새벽의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새벽은 세 가지 형태로 구체화 된다고 한다. 첫째는 제주도 무속 신화 천지왕 본풀이 서두에서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닭의 울음과 함께 새벽이 되는 것에서 볼 수

87) 김하준(2004) : 三國史記 朴赫居世 조 辰韓 6部에 관한 小考, 《語源研究》, 6호 : pp21-33.

88)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109.

89) 이유경(2004) : 《신화와 원형》, 이끝리오, 서울, pp260-270.

있는 혼돈에서 조화로의 이행이라는 우주적 질서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김알지의 신화에서 나라를 통치할 인물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흰 닭의 예처럼 자연 상태에서 국가적 체계를 갖춘 단계를 예고한다. 셋째는 일상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밤에서 아침으로의 자연 시간적 이행은 삶의 고난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닭이 태양과 관련된 상징성은 그 자체에 신성성을 함축하고 있어 신성한 계룡은 신성한 인물인 알영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90)</sup> 용(龍)은 못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속에 살며, 비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물고 다닌다고 여겨져 왔다. 용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로 물의 신(水神)이며 우사(雨師)의 성격도 지닌다. 많은 신화에서 수신(水神)인 용과의 혼인이 많이 나타나는데 국조나, 씨족조 등 귀인의 아버지로 나타난다. 특히 농경 문화권에서 군왕(郡王)과 용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계룡은 태양의 새, 빛과 불의 상징이고, 용은 물의 신이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불과 물, 하늘과 땅, 음과 양, 의식과 무의식의 상징이 되고, 이 두 가지 상징이 합쳐진 계룡(鷄龍)은 대극의 분할이전의 원초적 전일성을<sup>91)</sup> 지닌 존재로 혁거세의 왕비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알영은 하늘과 땅, 어둠과 밝음, 우주의 부모 등 한 쌍의 대립물들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혼돈의 상태에 있는 ‘알’에서<sup>92)93)</sup> 태어난 혁거세와는 달리 의식에 좀 더 가까워진 상태를 상징하는 동물인 계룡에서 태어난다. 매우 분화된 강력한 집단 의식의 상징으로 이미 태어난 혁거세왕과 신성혼(神聖婚)을 올릴 존재인 알영은 ‘알’보다는 어느 정도 분화된 무의식으로 볼 수 있는 계룡에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대극의 합일이 일어나기에 합당한 모습일 수도 있다.

알영은 계룡의 왼쪽 갈비에서 태어난다. ‘갈빗대’를 의미하는 한자 협(脇)에는 ‘옆구리’의 뜻도 있다. 갈빗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만든 하와와 석가모니 부처도 있다.<sup>94)95)</sup> 아담의 갈빗대로

90) 진태옥(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p197.

91) 이부영(2001b)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p269.

92) 이유헌(2001) : 창조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세계의 창조신화》, 서울, 동방미디어, pp318-322.

93) Jung CG(1959a) : The Psychology of the Child Archetype,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I,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290.

94) 민영진(2003) : 창세기2장21절-23절, 구약전서 《표준새번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서울, p2.



만든 하와는 아담의 말대로 자신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고 한다.<sup>96)</sup> 그런 의미에서 뼈는 생명에 필수적인 근원적 요소이고 존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최초의 근원적 물질을 의미한다.<sup>97)</sup> 사만의 입무 과정에서 해체라는 고행 과정 중 온 몸이 해체되어 뼈만 추러지게 되는 과정이 있다. 골격(骨格)은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 분화할 수 없는 최소단위 요소다. 엘리아데는 골(骨)에 대한 설명으로 ‘생명의 원칙’, ‘생명의 최후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인 의미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불멸의 창조적 원천의 상징이며 영혼의 근원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sup>98)99)</sup>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태몽으로 오른쪽 옆구리로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 후 석가모니를 잉태하였고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도 코끼리가 들어온 오른쪽 갈빗대 아래로 태어났다. 알영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내용은 불교가 신라에서 융성하게 되고 국교가 된 후대에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역시 상징적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00)</sup> 보통 오른쪽을 영어로 ‘right’라고 하고 우리말로 ‘바른’쪽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학적, 사회학적으로는 세계 도처에서 보편적으로 진실과 정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유독 중국의 좌우 상징 체계는 ‘좌(左)-양(陽)-남(男)’, ‘우(右)-여(女)-음(陰)’으로 연합되어 있고, 상대적 우위가 왼쪽에 있다고 한다. 이런 상징성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는데 혁거세왕 신화의 예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삼국사기에서는 알영이 용의 오른쪽에서 나왔다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용의 왼쪽 갈빗대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마도 이는 두 책의 저자의 사상성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삼국유사는 비교적 고문에 충실하고 구전

95) 브리태니커백과사전편집위원회(1993) : 브리태니커세계백과사전 7권, 한국브리태니커사, 서울, p117.

96) 민영진(2003) : 앞의 책, p3.

97) Chevalier J, Gheerbrant A, trans. by Buchanan-Brown(1996) : *A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p109-111.

98) Eliade M, 이윤기역(1992) : 《샤마니즘》, 까치, 서울, p53, 77.

99) 이부영(1969) : “입무과정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문화인류학 제 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서울, p117.

100) 브리태니커백과사전편집위원회(1993) : 브리태니커세계백과사전 7권, 한국브리태니커사, 서울, p117.

된 내용도 실었으며 중국 사상에 분식되기 전의 문헌을 참조한 일연은 왼쪽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은 고구려 동명왕이 유화부인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일상성, 즉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101)</sup> 분석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오른쪽은 의식과 이성, 밝음의 영역이고 왼쪽은 무의식과 감정과 어둠의 영역이다.<sup>102)103)</sup> 결국 계룡의 왼쪽 갈빛대는 무의식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성인 알영이 태어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된다.

알영의 입에 남아 있던 닭 부리(鷄嘴)가 북천에 가서 목욕을 하니 떨어졌다고 한다. 닭 부리가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은 아직 동물적, 본능적, 무의식적 요소가 남아 있어 의식이 분화되지 않고 아직 인격적인 분화도 덜 되어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상태로는 태어난 후 동천에 가서 씻고 광채가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혁거세의 배필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역시 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통과의례인 것이다. 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양, 빛과 불, 양(陽)의 상징으로 남성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모성을 갖춘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닭의 부리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완전한 여성의 얼굴에선 떨어져 없어져야 할 것이다.

혁거세는 동천의 물로 씻김을 받고 알영은 북천의 물로 씻기었다. 동쪽은 새로움과 빛을 상징한다면 북쪽은 악마가 사는 검은 곳,<sup>104)</sup> 또는 생명이 비루되고 죽어서 돌아가기도 하는 삶의 양면이 다 있는 곳이지만<sup>105)</sup> 혁거세왕 신화에서처럼 혁거세가 사뇌야(詞腦野) 북쪽에 있는 동천에서 몸을 씻고, 알영도 북천에서 씻고 닭 부리가 떨어져 나가는 기사로 보아 성소(聖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음양의 이치에서도 죽음과 동시에 삶이 움트는 원리를 내포하여 사신도의 벽화 중 북쪽의 현무도에 바닷 속 깊은 곳에서 거북과 뱀이 엉클어져 교접

101) 최인환(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p549.

102) Jung CG(1959b)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Self, *Aion*, C.W. 9 II,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409n.

103) Jung CG(1958) : Transformation Symbolism in the Mass,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C.W. 11,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435.

104) Jung CG(1958) : Transformation Symbolism in the Mass,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C.W. 11,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156-157.

105) Chevalier J, Gheerbrant A. trans. by Buchanan-Brown(1996) : *A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154.

하는 것에서 창조의 시간이 깊은 곳에서 내밀하게 진행됨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죽음과 파괴를 의미하는 북(北)쪽에 있는 냇물(川)에서 목욕을 하여 닭의 부리, 동물적 요소를 떼어내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일수도 있다.

알영(闕英)이라는 이름의 뜻을 어원적으로 볼 때 영(英)은 ‘꽃부리 영’인데, 고형(古型)은 ‘곶부리’, ‘갯부리’로써 알영(闕英)의 알(闕)을 음(音)으로 읽고, 영(英)을 훈(訓)으로 읽으면, ‘알갯부리’가 된다고 한다. ‘알’은 ‘큰, 위대한’의 뜻이고, ‘갯’은 ‘여자’,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므로 결국 알영(闕英)은 그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크고 위대한 여자’로서 새로 왕이 된 혁거세의 왕비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될 만하다.<sup>106)</sup>

#### 4. 혁거세왕과 그 왕후

혁거세와 알영은 남산 서쪽 산기슭, 일연이 살았던 당시 창림사(昌林寺)에 지은 궁실에서 길러진 후 열 세살이 되어 왕과 왕비로 추대되었다. 남산의 남(南)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앞’을 의미하므로 의식의 방향이기도 하고, 남쪽의 색인 붉은 색은 양기를 뜻하고, 살기 좋은 이상향, 중요한 곳을 뜻하기도 한다. 서쪽은 신화적으로 저승세계, 불교적으로 극락세계, 서방정토를 상징하고, 무속과 민속에서는 이상향으로, 또는 죽음, 암흑과 소멸을 상징하기도 한다. 남산의 서쪽은 서로 상이한 상징을 나타내는 점도 있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왕과 왕비를 추대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방향 모두 이상향을 이루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중첩된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주 남산의 창림사(昌林寺)는 신라의 학자 김생(金生, A.D.711~791)이 창림사 비문을 썼다는 기록으로 보아 8세기에 창건된 사찰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고,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옛 왕궁 터에 절을 지어 선왕을 봉안하고 기원하는 왕의 원찰(願刹)이었다 한다.<sup>107)</sup> 남산 서쪽의 산기슭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에서 유래한 절 이름이라고 한다면 창림(昌林)은 무성한 나무숲이라는 뜻으로 혁거세와 알영은 산과 무성한 나무숲, 즉 풍성한 모성적 품속에서 왕과 왕비가 될 때까지 13년을 컸다는 의미가 된다.

13은 서양에서는 흔히 불행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그러나 ‘13=12+1’로 보면

106) 김하준(2004) : 闕英은 ‘알갯부리’ 즉, 女性神, 백가쟁명, 역사21.

107) 장충식(199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권, 한국정신문화원, 서울, p679.

‘12제자와 예수’, ‘올림피아산의 12신과 최고신인 제우스’, ‘같은 배를 탄 12명의 선원과 함께한 오딧세이’의 예에서 가장 힘이 넘치고 고양된 상태이기도 하며, 또 다른 의미로 ‘12’를 1년의 12달, 매해를 동물로 상징하는 12간지(干支), 황도의 12 별자리 등 시간과 공간의 한 주기로 보고, ‘1’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면 한 주기를 한번 다 돌고 한 단계 또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13’ 살이라는 나이는 두 사람이 성인으로서 새로운 차원과 단계로 변화된 상태에 이르러 왕과 왕비로 추대되기에 충분한 상태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sup>108)</sup>

혁거세와 알영이 왕과 왕비로 추대된 오봉(五鳳) 원년 갑자(甲子)년의 오봉이라는 연호(年號)는 한나라 원제의 연호로 서기로 B.C. 57년이라고 한다.<sup>109)</sup> 숫자 ‘다섯’은 신화적으로 성수(聖數)로서 동명왕 신화에서 하늘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유희(柳花)부인이 낳은 닛 되들이 알에서 주몽이 태어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풍습에서 다섯은 색(色), 맛, 음(音), 곡식(穀食), 장(臟), 감각(感覺), 시간 등을 나누는 분류체계의 기본이 되고 한 주기의 기준을 나타내는 수이며, 또한 양(陽)에 해당하는 홀수인 길수(吉數) 중에서 5는 완전을 의미하는 길한 수이다. 봉(鳳)은 닭의 주둥이, 제비의 턱, 뱀의 목, 거북의 등, 용의 무늬,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갖춘 오색의 깃털을 지니고, 오음의 소리를 내며, 오동나무에 깃들이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는 상상의 신조(神鳥)로서 성인의 출현을 의미하며 계룡(鷄龍)이 이와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 오봉(五鳳)의 숫자 ‘다섯’과 봉(鳳)의 상징은 결국 훌륭한 두 성인이 천생연분의 좋은 배필이 되어 왕과 왕비로 추대되는 평화롭고 경사스럽고 태평성대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거듭 알리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으로,<sup>110)</sup> 모든 준비가 다 된 후 오봉 원년, 즉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 다섯 마리(오봉, 五鳳)의 기운이 서린 해에 완전히 새로운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새 왕과 새 왕비가 다스리는 새 왕국의 이름은 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지금 세간에서 경(京)자를 혼동하여 서벌이라 이르는 것도 이 까닭이다-이

108) Chevalier J, Gheerbrant A. trans. by Buchanan-Brown(1996) : *A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p988.

109) 일연, 이재연 옮김(2002) : 《삼국유사 1》, 제2 기이편 · 상, 솔, 서울, p.112.

110) 김종주, 강신표(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p355.

라 하고, 혹은 사라(斯羅) 또는 사로(斯盧)라고 지었다. 사로국, 서라벌 등의 '사로', '서라'는 위에 나온 '설'과 같은 의미로 신(新), 초(初), 동(東)의 뜻이므로 사로국, 서라벌은 결국, '새로운 도시', '새로운 땅', '새로 생긴 빛의 나라'라는 뜻이 된다.<sup>111)</sup>

혁거세와 알영이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7일 후에 그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고, 이 때 왕후 알영도 또한 세상을 떠나 함께 모아 묻으려 하나 뱀이 방해하여 할 수 없이 머리와 사지를 각각 장사지내 오릉(五陵)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치세기간 61년이 역사적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알려진 것에서 상징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61년간 다스린 기간 '61'은 다시 '60+1'이다. 환갑(還甲)인 것이다. 그가 즉위한 해 오봉 원년도 갑자(甲子)년이다. 그 나라의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른 해가 바로 60 갑자가 시작되는 갑자(甲子)년으로 새로운 나라 신라가 건국되는 해로서는 가장 걸맞는 해인 것이다. 또한 그 후 '60'갑자가 지난 후 환갑인 61년은 천간(天干)인 10간(干)과 지지(地支)인 12지(支)가 차례로 조합된 쌍을 이루어 일주기를 돌고 새로 60갑자가 다시 시작하는 해인 것이다. 60갑자를 이루는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에서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는 나무의 줄기 간(幹)글자와 가지 지(枝)글자에서 인용된 것이다. 간(干)은 강하며 양(陽)이 되고 성격은 명랑하고 외향적이며 적극적이다. 지(支)는 부드러우며 음(陰)이 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이고 보수적 기질이 있다. 천간의 열 개는 항상 움직이며 쉬지 않고 지지의 열두 개는 항상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 60년은 하늘과 땅, 양과 음이 서로 완전한 교감을 이루며 어울려 지낸 충분한 시간이 된다.<sup>112)</sup> '60'은 열 두해가 다섯 번 지난 것이기도 하다(60=12×5). '12'는 시간의 한 주기를 의미함을 앞서 인용된 바 있고, '5'는 '4+1'로 신, 자연 또는 우주 원리와 관련되어 구분할 수 없는 완전함을 뜻하는 성수(聖數)이다.<sup>113)</sup> 그러므로 61년을 다스리고 죽었다는 것은 오랜 기간 대극의 합일, 음양의 합일 상태에서 건국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할 일

111) 김하준(2004) : 三國史記 朴赫居世 조 辰韓 6部に 관한 小考, 《語源研究》, 6호 : pp21-33.

112) 이은서(1983)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16권》, 동아출판사, 서울, p505.

113) Jung CG(1959b)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Self, *Aion*, C.W. 9-II,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par 351n.

완전히 다 마친 후 새로운 세대가 되면서 자신의 고향인 하늘로 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혁거세는 자신이 비롯된 하늘에 다시 올라가 7일 동안 있다가 육신이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고 한다. 동양철학사상에서 인간의 혼백(魂魄) 또는 귀신(鬼神)에 대한 개념은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혼(魂), 또는 신(神)은 모든 물(物)은 활(活)하게 하는 힘을 뜻하여 ‘귀신(鬼神)’ 하면 우주의 신성(cosmic divinity)을 의미했다고 한다. 혼백, 또는 귀신 중에서 백(魄) 또는 귀(鬼)는 혼(魂)과 신(神)이 각각의 물(物)에 구체화된 것을 뜻하는데, 나중에 혼(魂)은 하늘로 날아가고(비, 飛), 백(魄)은 땅에 흩어지므로(산, 散) 혼비백산(魂飛魄散)하게 된다. 이 때 하늘로 날아간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신(神, 伸)에 해당하고 땅에 흩어지는 백(魄)은 땅으로 돌아가는 귀(鬼, 歸)에 해당하는 말이어서 신출귀몰(神出鬼沒)한다고 말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말로써는 낫이 신(神)이요 얼이 귀(鬼)의 뜻이라고 한다.<sup>114)115)</sup> 조선의 실학자 이익(李瀾)은 ‘귀(鬼)는 음(陰)의 영(靈)이요, 신(神)은 양(陽)의 영(靈)’이라고 하며, 귀와 신, 혼과 백은 하나의 생명현상의 두 가지 측면일 따름으로 귀(鬼)는 본체이며 신(神)은 그 현현(顯現)이고, 백(魄)은 음(陰)으로 형과 질이 생긴 것이고, 혼은 양(陽)이라고 하였다.<sup>116)</sup>

이 신화에서 땅에 떨어진 육체는 백(魄)이 남아 있는 유체(遺體)로 결국 하늘에 올라간 혁거세가 7일 만에 혼(魂)과 백(魄)이 나뉘어 혼(魂)은 하늘에 남아 있고 백(魄)은 떨어져 땅에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심리학적으로 하늘에 남은 ‘혼’은 Animus, Logos, 의식의 빛, 남성에서의 이성(理性)에 해당되는 남성성의 상징이고, 땅에 떨어져 흩어진 ‘백’은 Anima, Eros, 무의식에의 관계성, 연계성 등으로 표현되는 여성성의 상징이다.<sup>117)</sup> 하늘의 뜻에 따라 앞에서 태어나 신라를 건국한 혁거세가 그가 원래 비롯된 하늘로 올라가 혼은 하늘에 남고 백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각각 원래 자리하였던 곳으로 간 것이다.

114) 김용옥(1990a) : 《노자철학 이것이다(상)》, 통나무, 서울, p185.

115) 김용옥(1990b) :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통나무, 서울, pp119-125.

116) 이부영(1982) : “전통적 귀신론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정신의학보》, 6(1),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p8.

117) 앞의 책, p12.

하늘에 올라 머물었던 7일간은 혼백의 분리가 일어나는 기간이다. 숫자 중에서 4, 7, 12와 같은 수는 인간과 자연(특히 시간 현상, 천문역상)과의 접촉에서 생긴 것으로 4의 경우 사방(四方), 사계(四季) 등이 있고, 7의 경우 일수(日數)의 한 주기로 일주일의 7일, 12의 경우 12달, 12궁 등이 있다. 7일은 일수(日數)로 한 주기가 돌아가는 완전한 기간이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7(七)이 남근을 형상화한 글자이기도 하다. 신화에서 일곱은 신성한 숫자이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것이 완성되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에 넣는 칠성판에 구멍을 일곱 개 뚫고, 생사의 운명신이 칠성신이고, 바다에 빠진 녀들의 환을 풀어 줄 때 시신을 일곱 번 묶어 주는 등 일곱은 주력을 가진 수이기도 하다. 하늘에 남겨진 혼(魂)을 뒤로 하고 혁거세의 백(魄)은 완전한 한 주기가 지난 후, 남자의 근성을 가진 체, 맺힌 환을 풀어 주는 일곱 수, '7일 만에 대지로 돌아온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대지, 땅은 혼(Seele)과 생명의 영(Geist), 그리고 모성이 살아있는 원질료(prima materia)이다. 원질료는 무수히 다양한 이름, 즉 수은, 청동, 철, 금, 납, 소금, 유황, (식)초, 물, 공기, 불, 흙(대지), 피, 생명수, 라피스, 독, 영(Geist), 구름, 하늘, 이슬, 그림자, 바다, 모성, 달, 용, 비너스, 카오스, 소우주 등<sup>118)</sup>으로 불렸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다.<sup>119)</sup> 돌아온 혁거세의 백(魄)은 여성의 현현이었던 알영과 함께 땅에 묻힌다. 죽어서 다시 한 번 신성혼(神性婚)을 이루어 영원히 진정한 남성과 여성의 합일을 이루어 대지에 묻히는 것이다. 대지, 즉 무의식은 진정 생명과 창조성의 원천이다. 그리고 무의식은 의식작용보다도 항구적이고 그 능력을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이 자율성은 창조적 자율성이다. 그리고 무의식의 중심, 자기원형은, 자기와 자아의 전체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신성(Numinosum)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도 한다.<sup>120)</sup> 자기실현은 마땅히 우리의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하늘의 영(Geist)이 내려와 땅의 혼(Seele)과 합해지는 것이고, 정신이 내려와 물질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 바깥의 의식이 내면의 무의식으로 방향을 돌려 자아가 자기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118)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저작집번역위원회역(2004) :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용기본저작집 6권》, 솔, 서울, p128.

119) 앞의 책, p270.

120)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p69-70.

혁거세와 알영을 합장하려 하나 뱀이 방해를 한다. 왕과 왕후, 남성과 여성, 부성과 모성, 의식과 무의식을 합하여 한 곳에 묻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뱀은 태양, 남근과 같은 남성적 리비도(Libido),<sup>121)</sup> 또는 대지, 달 같은 여성적 리비도(weibliches Libido) 등 양성의 리비도를 다 상징할 수 있다.<sup>122)</sup> 또한 많은 알과 새끼를 낳는 것으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땅으로 떨어진 혁거세의 몸과 때 마침 죽은 알영을 나누어 여러 곳에 묻는 것은 풍요의 공유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가로 막는 뱀의 등장은 결국 풍요의 분배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 뱀으로 상징되는 무의식은 진정 생명과 창조성의 원천이다.<sup>123)</sup> 결국 뱀이 상징하는 무의식은 두 사람을 한 곳에 묻으면 풍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신인(神人)의 전형적인 숙명이기도 하다.<sup>124)</sup> 3세기의 연금술사이자 영지주의자인 초시모스 폰 파노폴리스는 환상 속에서 “나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성소의 사제인 이온(Ion)이다. 나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한 사람이 급히 와서 나를 습격하여 긴 칼로 내게 구멍을 뚫고 나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조화의 법칙에 따라 분리하면서 나를 찢었다. 그는 힘 있게 긴 칼을 놀리며 내 머리 가죽을 벗겼으며, 뼈를 살점들과 함께 모아 이 모두를 기술(Kunst)에 맞게 불 속에 태워서 나는 나의 신체가 변화하여 영(Geist)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나의 호몽클로스(Homunculus),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sup>125)</sup>

이집트의 ‘이시스-오시리스’ 신화에서도 오시리스를 죽인 세트가 시체를 14 조각으로 나누어 이집트의 전역에 뿌리는 이야기가 나온다. ‘14’는 ‘7+7’ 또는 ‘7×2’로서, 7은 모든 생명활동의 주기 전체를 나타내고, 7개의 별자리를 동원하여 우주의 전체성을 나타낸다. 특히 14는 달의 주기성을 반영하는 숫자이고 죽음의 서에서는 죽은 자가 14명의 심판자를 거쳐 가면서 죄의 무게를 달아야 한

121) Jung CG(1956) : *Symbols of Transformation*, C.W. 5, Princetin Univ.Press, Princeton, par146.

122) 앞의 책, par 155.

123)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p69-70.

124)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저작집번역위원회(2002) : 원형과 무의식, 융기본저작집 2권, 솔, 서울, p320.

125)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저작집번역위원회(2004a) : 초시모스의 환상, 인간과 문화, 융기본저작집 9권, 솔, 서울, p252.



다. 그래서 몸을 14 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생명의 근원적 자리로의 귀환, 즉 모성과의 완전한 일치와 동화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집트 전역에 뿌렸다는 것은 그 전역이 그의 영토임을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오시리스가 여전히 집단의식의 주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sup>126)</sup>

혁거세왕 신화에서는 뱀이 한 곳에 묻는 것을 방해하여 다섯 곳, 오릉(五陵)에 묻는다. '5'는 음양(陰陽)이 오행(五行)으로 나뉘듯이 돌(혁거세와 알영)이 다섯으로 늘어난 것이고, 이는 다신의 상징인 뱀의 상징성과 겹쳐져서 풍요를 의미할 수 있다. 다섯은 남성의 수 '3'과 여성의 수 '2'가 합한 혼인의 수이고 다섯 개의 손가락과 발가락, 사지와 머리의 오각형으로 된 인간의 온전한 신체, 혹은 영혼의 육화(肉化)를 뜻하는 수이다.<sup>127)</sup> 동양문화권인 중국에서도 여성 상징의 짝수 '2'와 남성 상징인 홀수 '3'을 합친 수인 '5'를 완전과 보편성을 상징하는 사고가 크게 발달하였고,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五方)의 뜻 역시 온 땅, 대지 전체를 말하고 특히 중심의 다섯 번째 지점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sup>128)</sup> 이 땅에서 영원히 풍성한 수확을 하려 한다면 왕과 왕후의 몸이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온 땅에 흩어져 방방곡곡에 대극의 합일의 상징이 묻혀 있어야 그 나라가 영원세세토록 그 힘을 받고 풍요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신화에서 대지와 여성성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뱀과 같은 무의식의 깊은 뜻을 의식의 나라에 사는 나라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냥 그 뜻을 받아들여 오릉에 나누어 장사지낸다. 의식과 무의식이 전체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장면이 완성되고 두 사람의 아들인 남해왕이 새로운 집단의식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친다.

## 마 무 리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였던 신라의 건국시조의 탄생신화가 탄생전의 상태에서부터, 탄생, 배필의 탄생, 성장, 결혼, 즉위, 다스림, 죽음. 죽음 이후, 계승까

126) 이유경(2002) : '이시스-오시리스 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17(1) : 47-48.

127) 위의 책, p.38.

128) 김태준(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p129.

지 거의 완전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이 신화에 나오는 1, 3, 5, 6, 7, 13, 61 등 다양한 숫자 상징, 동, 서, 남, 북과 중심을 포함한 모든 방위, 호랑이, 백마, 닭, 용, 봉(鳳) 뱀 등 많은 동물상징, 중심적인 상징인 알을 비롯한 바위, 박(瓢), 전광(電光), 샘물, 내(川), 나무, 숲, 산, 쇠 등 자연의 상징과 선도성모 같은 신상(神像) 등 이야기가 점차 전개되면서 등장하는 온갖 상징들은 이 짧은 신화 속에 온 인류가 경험해온 의식의 탄생, 부성과 모성의 합일을 통한 성장과 발전, 소멸, 재생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런 과정이 다음 세대로 영원히 계승되는 웅대한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화의 한 단어, 한 문장 또는 별로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보이던 내용들이 점차 그 뜻을 드러내고 있었고,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 작용이 그 모습을 달리 하며 계속 반복되며, 중층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인희(199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권, 한국정신문화원, 서울.
- 강종훈(1997) : “新羅 六部體制의 成立과 展開”, 《진단학보》83호, 진단학회, 서울.
- 김성호(1982) : 《비류백제와 일본국가의 기원》, 지문사, 서울.
- 김용옥(1990a) : 《노자철학 이것이다(상)》, 통나무, 서울.
- 김용옥(1990b) :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통나무, 서울.
- 김하준(2004a) : 三國史記 朴赫居世 조 辰韓 6部에 관한 小考, 韓國語源學會 《語源研究》.
- 김하준(2004b) : 關英은 ‘알갓부리’ 즉, 女性神, 백가쟁명, 역사21.
- 민영진(2003) : 《표준새번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서울.
- 민중서관편집국(2004) : 《漢韓大字典》, 민중서관, 서울.
- 문순열(2008) : 《산야초식물도감》, 글로북스, 서울.
- 박 신(2004) : 부성 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심성연구》, 19(1,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브리태니커백과사전편집위원회(1993) : 브리태니커세계백과사전 7권, 한국브리태니커사, 서울.
- 서정범(1996) : 《우리말의 뿌리》, 고려원, 서울.
- 안드레아스·쉽델, 오석균 옮김(1996) : 《수의 신비와 마법》, 고려원미디어, 서울.
- 융,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집번역위원회(2001) :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융 기본저작집 1권》, 솔, 서울.

- 융,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집번역위원회역(2002) : 《원형과 무의식, 융기본 저작집 2권》, 솔, 서울.
- 융,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집번역위원회(2004a) : 《인간과 문화》, 융기본 저작집 9권, 솔, 서울.
- 융, C.G. 한국융연구원, C.G. Jung 저작집번역위원회역(2004b) :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융기본저작집 6권, 솔, 서울.
- 이부영(1969) : “입무과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문화인류학 제 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서울.
- 이부영(1982) : “전통적 귀신론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정신의학보》, 6(1),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서울.
- 이부영(1995) : 《한국민담의 심층연구 : 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서울.
-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 이부영(2001a) : 노자와 융(3) : 上善若水, 《길》, 한국융연구원, 서울.
- 이부영(2001b)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이유경(2001) : “창조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서울.
- 이유경(2002) : “이시스-오시리스 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17(1),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이유경(2004) : 《신화와 원형》, 이끌리오,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이은서(1983)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16권》, 동아출판사, 서울.
- 이죽내(1987) : “한국 민담에서 본 모성상”, 《심성연구》, 2(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이종욱(2002) : 《신라의 역사 1》, 김영사, 서울.
- 이현희(1983)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16권》, 동아출판사, 서울.
- 일 연, 이재호 옮김(2002) : 《삼국유사 1,2》, 솔, 서울.
- 장주근(2000) :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 장충식(199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권, 한국정신문화원, 서울.
- 전인초, 정재서, 김선자, 이인택(2002) : 《중국신화의 이해》, 아카넷, 서울.
- 조동일, 이복규, 김대숙, 강복옥, 박순임(1989) :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I) 한국 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 조지훈(1997) : 《한국문화사서설》, 나남출판사, 서울.
- 조현설(2006) : 《우리신화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서울.
-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5) :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 Chevalier J, Gheerbrant A. trans. by Buchanan-Brown(1996) : *A Dictionary of Symbols*, Penguin Books, London.
- Cirlot JE, 이승훈 편저(1995) : *A Dictionary of Symbols*,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서울.

- Cooper JC(1987)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omsons & Hudsons, London.
- Eliade M, 이윤기 역(1992) : 《샤마니즘》, 까치, 서울.
- Jung CG(1953)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 Jung CG(1956) : C.W. 5, *Symbols of Transformation*, Princetin Univ. Press, Princeton.
- Jung CG(1958) : C.W. 11,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Dogma of the Trinity,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 Jung CG(1959a) : C.W. 9-I, A Study i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Routledge & Kegan Paul , London & Henley.
- Jung CG(1959b) ; C.W. 9-II,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Self, *A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 Jung CG(1966) : C.W. 16, *The Practice pf Psychotheray*, Princetin Univ. Press, Princeton.
- Jung CG(1967) : C.W. 13, *Alchemical Studies*, Rout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 Jung CG(1974) : “The Father in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Freud and Psychoanalysis*, C.W. 4,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Henley.
- Jung CG(1976) :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in Univ. Press, Princeton.
- Thomson S(1975) : *Motif Index of Folk-Literature*, Vol. 1, Bloomingdale & Indiana University Press, London.

Shim-Sŏng Yŏn-Gu 2013, 28 : 1

〈ABSTRACT〉

**A Study of Myth of King Heokgeose,  
the Founder of Shilla Dynasty from a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Sang Ick Han, M.D., Ph.D.\*

C. G. Jung believed that universal and basic condition of human's Unconscious comes out from Märchen or mythology. We can easily experience these universality of human nature in dream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nterpret mythogens that appear in myths and märchen in analytical psychology to understand these 'big dreams' which could be seen in clinical practice.

As I was interested in interpreting myths in analytic psychology, I tried to find universality of archetypes in Korea's traditional folk tales and took note of the birth myth of Hyeokgeose, the founder of Shilla dynasty, while examining the charter of the Unusual in history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Kingdoms. Shilla was founded earlier than two other countries, but it was located in the very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 was behind times in politically, militarily, and culturally compare to Goguryeo and Baekje. However, Shilla achieved unifying the Three Kingdoms and it lasted 1000 years, the longest unified history in Korean history. I tried to examine archetypes in the birth myth if there are any backgrounds that are related to finding a Shilla Kingdom.

It is noted that myth of the founder of Korean Peninsula's small Kingdom Shilla has complete story from before the birth to birth, birth of spouse, growth, marriage, accession, governing, death, after death, and succession. Symbols such as numbers 1, 3, 5, 6, 7, 13 and 61, various azimuthes including north, west, south, east, and central, animals like tiger, white horse, hen, dragon, phoenix, and snakes, natures like main symbol egg, rock, gourd, lightening, spring water, stream, tree, forest, mountain, iron and goddess-image like seon-do Holy

Mother gradually appears in the myth. These symbols could show a meaning of human experience such as birth of Consci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paternal and maternal love, and story of regeneration and extinction. Moreover, It could be seen as these progress eternally continues in next generation. I have found out that a word, a sentence or stories that looks meaningless in myth revealed its true symbolical meaning. In addition, interaction between Unconscious and Conscious repeats in different forms, and expressed in layered.

**KEY WORDS** : King Heokgeose · Myth · Analytical psychology.

---

*\*Jungian Analyst, Department of Psychiatry, Incheon St. Mary Hospital, School of Medic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